

복음메시지

로마서 5:8

정윤돈 목사님

영상은 한 번 찍어두면 영원히 남는다. 기념비가 된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는 복음 전하기 힘들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쉽게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번에 팔라완을 가는데, 영어로도 복음소식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부담 가질 것은 없지만, 특히 램넛들이 준비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복음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복음메시지를 잠시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전도자로 남으라고 말씀한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다 하지만, 인생을 걸만한 것은 없다. 지교회를 하는데, 포럼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해서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기에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교회에 올 때쯤 우울증에 빠졌던 것이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도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 공허함에 빠졌다. 굉장히 배부른 공허함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살하지 않는다. 성공했는데, 엘리트들이 그렇게 한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가 싶은 것이다. 그런데 엘리트들 특징이 절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안 한다. 아무 말도 못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자살의 결단을 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트 자녀들은 더 고통스럽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란다. 복음과 그리스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해하고 결론내려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게 안 되어서 갈등하고 공허와 방황에 빠지고 자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하면 오히려 자꾸 어려움이 온다.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갈등이 많다. 그래서 다른 악습이 많다. 영적인 문제가 많다. 더 큰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자신은 가장 힘들다. 그게 엘리트들의 특징이다. 여러분이 서밋도 치유하기를 바란다. 울무, 함정, 틀에 묶여 있다. 해방이 안 된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식, 남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죽이는 것이 된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우리는 그 옳은 말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대단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다. 몰라서 그렇다. 오늘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복음이다.

1. 원래의 인간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여러분은 지렁이의 후손이 아니다. 단세포 생물의 후손이 아니다. 창세기 1:27에 보면,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창조 원리를 따라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 누리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다.

2. 문제가 생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 이 문제를 철학자, 과학자, 박사, 교수가 모른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을 범죄하게 하여 저주에 빠뜨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이 다 알면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했다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과연 선악과를 안 따먹을 것 같은가? 이 시대의 선악과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과연 이번 주에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것 같은가? 몇 박스를 따먹었을 것이다. (웃음) 우리는 다 알아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제일 말을 안 듣는 것이 우리 자식들이다. 그런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네네네 노래해도, 실제로는 노노노 한다. (웃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계속 불려라. 조금씩 '네'가 늘어갈 것이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있다. 자꾸만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눈에 보이면 하지 말라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불순중에 빠지도록 한다. 맞는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한다. 맞는 말을 하면서 남편, 자녀를 죽이고 행복을 빼앗아간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핑계를 사단에게 댈 수는 없다. 유혹은 사단이 했어도 범죄는 인간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넘어질 때 합리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이 고백을 하라.

3.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1) 하나님 떠난 이 사건이 바로 근본 문제다. 그 결과, 불순종한 인간은 완전히 멸망에 빠져 버렸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꾸 고통이 왔는데,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힘든 일, 더 괴로운 일이 많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진다. 청소년 때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더 이상의 어려움이 온다. 복음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치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문제가 많을수록 좋다.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으로, 기도로,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24시 복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하나님 떠난 상태가 오래 되면,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령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다. 영적인 문제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내가 없어져 버린다. 말을 함부로 확 한다. 상대방이 살든 죽든 상관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 영적 문제에서 가장 심한 상태가 자살이다. 자살은 돌이킬 수 없다.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야 하게 된다. 흑암 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가장 큰 영적 문제다. 자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계속 괴롭힌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로, 생각으로 괴롭힌다. 별 문제가 없는데, 나를 계속 틀에 가둔다. 나를 괴롭힌다. 그게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두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3)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우리 영을 건드린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파고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게 안 되니까 술을 퍼 마시고, 마약을 하게 된다. 다른 것을 해야 한다. 세상 것은 결국 행복을 주지 못한다. 답이 아니다.

(4)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된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문제가 온다. 희한한 것은, 돈이 많은데 경제문제가 온다. 건강한테 건강 문제가 온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5) 그러다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6) 후대에까지 지옥 문제를 물려주게 된다. 어떤 아이는 본드를 하는데, 본드를 마시다 보니 기억이 특특 끊어진다고 한다. 어떤 아이는 본드를 마시고 길을 가다가 굴러 떨어졌는데 죽어 버렸다. 멸망 가운데 빠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속에 있던 어떤 아이가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현장을 치유해야 하겠다.

4.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면, 종교, 철학,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우리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요한복음 5:24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영접하면 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을 천주교인들이 모르고 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하는가? 로마서 10:9-10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5. 하나님의 자녀가 깨달아야 할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16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확신을 붙잡아야 한다. 구인승기사, 다섯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237개 나라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로마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과 램넛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음소식을 각인하고, 창세기 3장의 의미와 복음의 중요성을 열린찬양예배를 통해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답과 결론을 내려서, 이 엄청난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